



2017년 10월 8일(제844호) 연중 제27주일

# 군종주보

발행 : 군종교구 홍보국 | 전화 : 02)749-1921, 02)900-7756 | FAX : 02)790-5768 | http://www.gunjong.or.kr | email : hongbo@gunjong.or.kr

## 말씀

## 버린 만큼 채워주시는 하느님

중국의 철학자 장자는 이러한 말을 남겼습니다. “인생을 바르게 살아가려면 뭐든지 한 발자국 앞에서 멈추는 것이 옳다.” 내 안에서 비롯되는 욕심과 탐욕을 다 채우려 하지 말고, 약간 모자라고 아쉬운 듯한 마음으로 살아가라는 가르침입니다. 한 발자국 앞에서 멈추기가 어려워, 딱 한발자국 때문에 벼랑으로 떨어져 버리는 경우가 오늘날 참으로 많습니다.

오늘 복음 말씀에서 예수님께서서는 욕심과 탐욕 때문에 하느님의 사랑을 배신하게 되는 소작인들의 비유를 들려주고 계십니다. 포도원 주인은 포도나무를 심어주고 울타리를 만들어 주고 포도즙을 짜는 확을 파주고 망대까지 세워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일하는 사람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자신의 자리까지 비워주고 멀리 떠나갔습니다. 또한, 포도를 수확하는 때가 되자 바쁘게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 직접 소출을 가져 오라고 하지 않고 당신의 종을 보내 주는 배려까지 베풀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배려에도 불구하고 소작인들의 욕심은 날이 갈수록 커져만 갔습니다. 그들은 주인의 배려를 풍성한 소출로 보답한 것이 아니라, 종들을 매질하고 죽이기까지 하는 배은망덕으로 응답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극에 달한 그들의 욕심은 상속자인 아들마저 죽이게 됩니다. 지나치게 더 가지고 싶어 하는 그들의 탐욕의 마음이 하느님의 사랑과 배려를 저버리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또한 일상 안에서 우리의 탐욕과 욕심 때문에 일을 그르치거나, 사람들과의 관계가 소원해질 때가 있습니다.

“한마디만 아꼈더라면, 한 번만 더 생각하고 행동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을 때가 참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탐욕과 욕심은 하나를 채운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채움은 또 다른 부족함을 낳기 마련이고, 부족함은 또 다른 욕심을 불러오기 때문입니다.

탐스럽고 풍성한 결실을 얻기 위해서는 지나친 욕심과 미련을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금을 얻기 위해서는 마음속에 가득 찬 은을 버려야 하고, 다이아몬드를 얻기 위해서는 또 어렵게 얻은 그 금마저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결국에는 모자라고 아쉬운 마음이 들겠지만, 버리면 버린 만큼 얻을 수 있습니다. 그 버린 만큼 하느님께서서는 넘치도록 가득히 채워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 안의 욕심의 마음을 내려 놓고 그 자리를 하느님의 사랑과 하느님의 자비로 채워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서는 더 많은 포도밭, 당신의 일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실 것입니다.



이승남(스테판노) 신부  
필승(육군 30사단) 상영 주임

- 제 1 독 시 이사 5,1-7
- 회 답 송 ◎ 주님의 포도밭은 이스라엘 집안이라네.
- 제 2 독 시 필리 4,6-9
-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뽑아 세웠으니, 가서 열매를 맺어라. 너희 열매는 길이 남으리라. ◎
- 복 음 마태 21,33-43
- 영 성 제 송 당신을 바라는 이에게, 당신을 찾는 영혼에게 주님은 좋으신 분.

# 진리를 살다

이 기회에 우리는 미사의 제사성과 관련하여 제사의 본뜻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적어도 우리가 미사를 가리켜 제사라고 부르기 위해서는 먼저 제사의 참된 의미부터 밝혀야 하겠기 때문입니다. 제사를 의미하는 말로 라틴어 사크리피치움(Sacrificium, 희생)이 있는데, 이 말에는 세상의 어떤 물건을 하느님께 바침으로써 그것을 아주 없애 버린다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가장 원초적(原初的) 제사로 보이는 번제(燔祭)에서는 제물로 바친 짐승이나 음식을 완전히 태워 없애 버리고 하나도 남기지 않았습니니다.

구약성경에 나타난 제사 개념은 네 단계에 걸쳐 발전했습니다. 첫째, 족장시대에는 제사 때 신(神)에게 직접 음식을 제공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예를 들면 판관기의 “신들과 사람들을 흥겹게 해 주는 포도주”(9,13)라는 표현은 신에게도 술을 드릴 수 있다는 사고방식을 알려줍니다. 시편에서도 비슷한 개념이 나타납니다. “나는 네 집에 있는 수소도, 네 우리에 있는 숫염소도 받지 않는다. ... 내가 황소의 고기를 먹고 숫염소의 피를 마시기라도 한단 말이냐?”(50,9,13)

두 번째 단계로 정신화 된 제사 개념입니다. 곧 신은 제물을 직접 먹고 마시지 않지만 번제단의 냄새를 맡고 흐뭇해하며 제사를 기쁘게 받아들인다는 생각입니다. 예를 들면 “향기로운 제사”란 표현이 그것입니다. 창세기의 “주님께서 그 향내를 맡으시고 마음속으로 생각하셨다.”(8,21)라는 표현이나 레위기의 “너희가 바치는 향기도 맡지 않겠다.”(26,31)와 같은 표현들은 이 같은 개념을 반영합니다. 셋째 단계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후에는 물질적인 제사를 바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이른바 ‘찬미’의 제사 개념이 나타납니다. 특히 회당에서 바치는 아침 예배와 저녁 예배는 찬미의 제사였습니다.

이런 제사 개념을 시편 141장 2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저의 기도 당신 면전의 분향으로 여기시고 저의 손 들어 올리니 저녁 제물로 여겨 주소서.”,

# 미사의 제사성

“주님, 제 입술을 열어 주소서. 제 입이 당신의 찬양을 널리 전하오리다.”(51,17)에서도 그 개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신약의 히브리서는 바로 이런 사상을 받아들여 “...그러므로 예수님을 통하여 언제나 하느님께 찬양 제물을 바칩시다. 그것은 그분의 이름을 찬미하는 입술의 열매입니다. 선행과 나눔을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이러한 것들이 하느님 마음에 드는 제물입니다.”(13,15-16)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완전히 정신화 된 제사 개념이 나타납니다. 곧 “감사하는 마음”, “찢어지고 터진 마음”이 바로 제물로 간주됩니다. 구성경 시편 50장 23절에서 이런 제사 개념을 엿볼 수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제물로 바치는 자, 나를 높이 받드는 자이니, 올바르게 사는 자에게 내가 하느님의 구원을 보여 주리라.”, 시편 51장 19절에서 20절의 “하느님께 맞갖은 제물은 부서진 영, 부서지고 꺾인 마음을 하느님, 당신께서는 업신여기지 않으십니다. 당신의 호의로 시온에 선을 베푸시어 예루살렘의 성을 쌓아 주소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어 성부께 바치신 제물도 그 찢어지고 터진 성심이었습니니다. 집회서는 고도로 정신화 된 제사 개념을 명백히 보여줍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 제물을 많이 바치는 것이고, 계명에 충실한 것이 구원의 제사를 바치는 것이다. 은혜를 갚는 것이 고운 곡식 제물을 바치는 것이고, 자신을 베푸는 것이 찬미의 제사를 바치는 것이다. 악을 멀리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게 해 드리는 것이고, 불의를 멀리하는 것은 속죄하는 것이다. 주님 앞에 빈손으로 나타나지 마라.”(35,1-6) 그리스도께서 바치신 제사는 자신을 온전히 하느님께 맡기고 그분의 뜻을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분의 제사는 단순히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만이 아니고 출생과 공생활(公生活), 수난, 죽음, 부활을 포함하는 그의 전 생애(全生涯)를 하느님께 바치신 것을 의미합니다.

최창덕 F.하비에르 / 대구교리신학원 원장  
『대구대교구 ‘빛’ 잡지 발췌』

복	음	묵	상
---	---	---	---



- 배영길(비드로) 신부 / 예수회

### 밥상 받듯

약함이랄 것  
밥상 받듯하자.

밥상을 감사히 받고  
잘 먹고,  
잘 소화시켜야 하듯.

그 녀석 또한 피하지 말고  
잘 받고 잘 소화시켜  
나가야 한다.

밥 먹을 일 없으면  
약함에 힘들 일도  
없지 않은가.

상화이야기

우르술리 성함



지난주에 이어 본 성함을 계속 살펴보자면, 전설에 의하면 우르술라는 영국 남부 지방의 공주였는데, 11,000명의 동정 여성 시종들을 대동하고, 아르모니카 지방의 이교도 군주와 결혼하기 위해 항해를 시작하였다. 그러나 우르술라는, 결혼 전에 유럽 전역에 순례를 떠나겠다고 선언하였고, 로마에 시녀들과 함께 도착하였다. 우르술라는 교황을 설득하여, 자신들과 함께 거룩한 순례를 떠나기를 촉구하였다. 이후 콜론 지방에 도착한 우르술라와 그녀의 일행은, 당시 이 지역을 점령하던 훈족 군인들에게 사로잡혔고, 자신들의 신앙과 동정을 포기하지 않았던 우르술라의 여성 시종들은 모두 참수형을 당했고, 우르술라는 훈족 군대의 최고 지휘관이 화살로 쏘아 순교하였다.



고딕 성당 모양의 성함 양면에 각기 3개씩 그려진 그림 중 한 면에는, 성녀가 고향을 떠나 항해를 시작하여, 바젤과 로마 콜론에 도착하는 모습, 그리고 다른 한 면에는 성녀와 성녀 시종들의 순교장면이 그려져 있다.

위 그림 중 세부도인 위 그림은, 시종과 주교들을 대동한 교황이 로마에 도착한 성녀와 그 일행들을 맞이하는 장면으로, 성당 앞으로는 성녀와 일행이, 성당 안쪽에는 세례를 받는 신자들이 그려져 있다.

<다음 주에 계속>

김은혜(앨리스벳)

헝스 멤링(1430-1494)

1489년 작, 본합틀 87 X 33 X 91 cm

성 요한 병원, 벨기에 브뤼헤

교 구 소 식

군중부원회 회원을 위한 미사 - 연중 제27주일: 목포해군 이재혁 신부

◆ 교구장 동정

- 국군중앙 주교좌 성당 미사  
    때: 10월 8일(주일) 11:00
- 국장회의  
    때·곳: 10월 10일(화) 16:00, 교구청 회의실

◆ 군신교단 미사 및 모임

- 때: 10월 12일(목) 18:00
- 곳: 국군중앙 주교좌 성당

◆ 제50회 군인 주일 행사

- 때: 10월 14일(토)-15일(주일)
- 곳: 전국 일반 본당

“군(軍) 복음화, 새 열정으로” - “나회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여야리” (마르 16,15)